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수호전

SHUI
HU
ZHUAN

시내암 라관중
박정일 오수자 역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수호전

2

사대암 라관중
박정일 오수자 역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水浒传. 2: 朝鲜文 / (明)施耐庵, (明)罗贯中著;
朴正一, 吴水姊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9-3

I. 水… II. ①施…②罗…③朴…④吴… III. 章回小说—
中国—明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 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184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97 年 1 月
第 2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31 회 장도감의 피는 원앙루를 적시고
무행자는 한밤중에 오공령을 넘다 /1
- 제 32 회 무행자는 취중에 공량을 때리고
금모호는 의리로 송강을 풀어준다 /20
- 제 33 회 송강은 달밤에 소오산을 구경하고
화영은 청풍채에서 대소동을 일으키다 /44
- 제 34 회 진삼산은 청주로 가는 길에서 대소동을 일으키고
벽력화는 밤에 불에 탄 폐허로 가다 /61
- 제 35 회 석장군은 시골주막에서 편지를 전하고
소리광은 량산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쏜다 /82
- 제 36 회 오용은 량산박에서 대종을 천거하고
송강은 계양령에서 리준을 만나다 /104
- 제 37 회 물차란은 급시우를 붙잡으려 뒤쫓고
선화아는 심양강에서 소동을 일으키다 /122
- 제 38 회 급시우는 신행태보를 만나고
흑선풍은 량리백조와 싸우다 /144
- 제 39 회 송강은 심양루에서 반역시를 읊고
대종은 량산박의 가짜편지를 전하다 /167
- 제 40 회 량산박 호걸들은 사형장을 들이치고
영웅들은 백룡묘에서 소취의하다 /197
- 제 41 회 송강은 지략으로 무위군을 치고
장순은 황문병을 사로잡다 /214
- 제 42 회 환도촌에서 천서 세권을 받고
송공명은 구천현녀를 만나다 /237

- 제 43 회** 가짜리규가 길목에서 단신행인을 털고
흑선풍은 기령에서 호랑이 네마리를 잡다 /258
- 제 44 회** 금표자는 오솔길에서 대종을 만나고
병관삭은 큰길에서 석수를 만나다 /282
- 제 45 회** 양웅은 취중에 반교운을 욕하고
석수는 교묘하게 배여해를 죽이다 /304
- 제 46 회** 병관삭은 취병산에서 대소동을 일으키고
병명삼랑은 축가점을 불사르다 /329
- 제 47 회** 박천조는 생사서를 두번이나 쓰고
송공명은 처음으로 축가장을 공격하다 /347
- 제 48 회** 일장청은 단신으로 왕왜호를 사로잡고
송공명은 두번째로 축가장을 공격하다 /367
- 제 49 회** 해진과 해보는 함께 탈옥하고
손립과 손신은 옥을 들이치다 /383
- 제 50 회** 오학구는 두번이나 련환계를 쓰고
송공명은 세번째로 축가장을 공격하다 /405
- 제 51 회** 삼시호는 항쇄로 백수영을 치고
미엄공은 유인책에 빠져 귀공자를 잃게 되다 421
- 제 52 회** 리규는 은천석을 때려죽이고
채진은 고당주에서 붙잡히다 /440
- 제 53 회** 대종은 지혜로 공손승을 데려오고
리규는 도끼로 라진인을 찍다 /460
- 제 54 회** 입운룡은 법술로 고렘을 격파하고
흑선풍은 우물에서 채진을 구해내다 /483
- 제 55 회** 고태위는 3로군을 출동시키고
호연작은 련환마를 벌려놓다 /502
- 제 56 회** 오용은 시천에게 갑옷을 훔치게 하고
탕룡은 서녕을 피여 산으로 오게 하다 /517

- 제 57 회** 서녕은 구럼창법을 가르치고
송강은 런환갑마를 격파하다 /534
- 제 58 회** 세곳 산채의 인마를 취의하여 청주를 치고
여러 호걸들은 한마음으로 량산에 가다 /553
- 제 59 회** 오용은 금령조패를 얻어내고
송강은 화산에서 소동을 일으키다 /570
- 제 60 회** 공손승은 망탕산의 마왕을 항복시키고
조천왕은 증두시에서 화살을 맞다 /588

제 31 회

장도감의 피는 원앙루를 적시고
무행자는 한밤중에 오공령을 넘다

장단련이 구슬리고 청탁하는데 넘어간 장도감은 장문신의 원수를 갚고저 무송을 죽이려 했다가 그 네 사람이 비운포에서 무송한테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리우에 서서 무송은 한참이나 골똘히 생각하면서 망설였다. 허나 생각하면 할수록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일길이 없었다.

(장도감을 죽이지 않고서야 이 원한을 어찌 푼단 말인가?)

그는 시체옆으로 다가가서 요도를 끌러내여 그중 좋은것으로 골라차고 박도를 골라잡고나서 도로 맹주성을 향해 줄달음쳤다.

성안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날이 어두워 짙짙마다 문을 닫아걸고있었다.

네 거리엔 등불 휘황하고
향연 자욱한 구요사(九曜寺)엔
종소리 울리어라
밝은 달 두둥실 청천에 걸리고
별들은 령통하게 빛을 뿌리네
육군(六軍)의 진영에선
화각소리 요란한데
오고루(五鼓樓)의 각루(刻漏)에선
물방울 떨어지네

가인들은 쌍쌍이 규방으로 돌아가고
선비들은 짝을 지어 서재로 들어가네.

성안에 들어선 무송이 장도감의 후원 담장뒤에 이르고보니 그곳은 마구간이었다. 마구간옆에 바싹 붙어서서 동정을 살펴보니 마부는 아직 내아에서 나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바로 이때 옆문이 삐거덕하고 열리면서 한 마부가 초롱불을 들고 나왔다. 안에서는 누가 문을 닫아거는 모양이었다. 어둠속에 숨어서 들으니 어느덧 초경 4점을 알리는 경점소리가 들려왔다.

마부는 여물을 버무려주고 초롱불을 걸어놓은 다음 침상에 이불을 펴더니 옷을 벗고 누워 자려고 했다.

무송은 문앞에 바싹 붙어섰다. 그 바람에 문을 건드려 소리가 나자 마부가 소리쳤다.

“어느 놈이냐? 이 어른이 금방 누웠다. 네놈이 내 옷을 훔치기에는 아직 너무 일러!”

무송은 박도를 문앞에 세워놓고 요도를 빼여들고 문을 들이밀었다. 마부는 더 이상 그대로 있을수 없었는지 훌쩍 벗은채로 뛰어내려와 여물막대기를 집어들고 빗장을 벗겼다. 그가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무송이 문을 박차고 달려들어 마부의 목을 와락 거머쥐었다. 마부는 고함을 지르려다가 등불아래에서 번뜩이는 칼을 보자 질겁한 나머지 오금이 풀려 그저 외마디소리를 지를뿐이었다.

“사, 살려주십쇼.”

“이놈, 나를 알아보겠느냐?”

마부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가 무송임을 알아챘다.

“나리,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댁쇼. 제발, 사, 살려주십쇼!”

“바른대로만 대라. 장도감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오늘은 장단련과 장문신하고 셋이서 진종일 술판을 벌렸는데 지금은 원양루에서 술을 마시고있을겁니다.”

“그게 정말이냐?”

“입에 종기가 나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네놈도 용서할수 없다.”

무송은 단칼에 마부를 죽인 다음 발길로 시체를 차버리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런후 등불아래에서 허리에 띠던 전대를 끌러 시은이 준 솜옷을 꺼내여 낡은 옷과 바꿔입었다. 몸을 가볍게 단속하고 요도와 칼집을 다시 허리에 차고 마부의 홀이불로 은전들을 싸서 전대에 넣어 문옆에 걸어놓았다. 그리고는 두 문짝을 떼여 담장에 기대놓은 다음 불을 끄고 살짝 빠져나왔다. 박도를 들고 문짝을 사다리로 삼아 한걸음 한걸음 담벽을 살살 기어올라갔다.

달빛은 대낮처럼 밝았다. 담장안으로 훌쩍 뛰어내린 무송은 먼저 옆문을 열고 나가 담장에 기대놓은 문짝을 제자리로 가져다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옆문을 닫고 빗장을 다 뽑아버렸다. 그런후 불빛이 환한 곳으로 걸어갔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곳은 부엌이었다. 두 녀종이 물 끓이는 솥옆에서 투덜대고있었다.

“진종일 부려먹고도 모자라는가. 원, 돌아가서 잘 생각은 안하고 또 차를 가져오라니! 그 두 손님들도 럽치가 없지. 저렇게 취하고도 돌아가 잘 생각은 안하고 끝도없이 지껄이기만 하고있으니!”

녀종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종알대고있는 사이에 무송은 박도를 세워놓고 허리에서 그 피문은 칼을 뽑아들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 먼저 한 녀종의 틀어올린 머리채를 거머쥐고 단칼에 찢러죽였다. 그러자 다른 한 녀종이 달아나려 했으나 어찌나 질겁했던지 두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입이 얼어붙은듯 소리도 지를수 없었다. 그 두 녀종은 고사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 놀라서 혀가 굳어버렸을것이다.

무송의 손이 번쩍이자 어느새 그 녀종도 쓰러졌다. 두 시체를 부뚜막앞에다 끌어다놓고 등불을 끈 다음 창밖의 달빛을 빌어 한걸음 한걸음 내당으로 들어갔다.

무송은 원래 내아를 드나들던 사람이라 길을 훤히 꿰뚫고있었으므로 곧장 원앙루 층계로 달려가서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갔다.

이때 시종들기에 지쳐버린 하인배들은 모두들 어디론지 피해버리고 없는지 장도감, 장단련, 장문신 세 사람의 말소리만 들릴뿐이었다. 무송이 층계어귀에서 서서 들으니 마침 장문신이 아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감께서 소인을 위해 원쑤를 갇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후에 톡톡히 갚겠소이다.”

“이 동생이 장단련의 낫을 보지 않았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자네가 돈을 좀 쓰기는 했지만 그놈을 속 시원히 없애버리게 됐네. 내가 비운포에서 없애버리라고 했으니 아마 지금쯤은 손을 썼을 거네. 래일아침 그 네 사람이 자세한 소식을 갖고 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이번엔 장단련이 맞장구를 쳤다.

“그 네 사람이 그 한놈을 없애버리지 못할라구요. 그 한놈이 아니라 몇놈 더 있대도 문제없죠.”

그러자 장문신이 말을 받았다.

“저도 저의 제자들더러 함께 가서 없애버리고 속히 돌아와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암실이 어둡다고 행악질이 당할손가
고금의 간악한자 좋은 끝장 없었다네
가을바람 불기전에 쓰르라미 먼저 우니
남을 몰래 죽이려다 제가 먼저 죽는구나.

그들의 말을 듣고있으려니 무송은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수 없었다.

그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문을 활짝 열며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네댓자루의 휘황한 화촉과 비쳐드는 달빛에 환히 밝은 방 가운데는 벌려놓은 술상이 거두지 않은채 그대로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장문신은 무송을 보자 혼비백산하여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는것 같았다. 그가 급히 피하려는 순간 어느새 무송은 장문신의 면상을 내리찍어 그자가 앉았던 의자까지 함께 두쪽을 내버렸다. 이어 몸을 뒹 돌려 내빼려는 장도감을 찍으니 장도감은 귀밑에서부터 목까지 베어져 마루바닥에 풀썩 꼬꾸라졌다. 넘어진 그 두놈은 버둥거렸다.

두놈이 칼에 맞아 꼬꾸라지는것을 보자 비록 얼떨결이기는 해도 장단련만은 무관출신이라 취했으나 힘을 쓸수 있었는데 두놈이 칼에 맞아 쓰러지자 자기도 죽음을 면치 못할줄 알고 의자를 들어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무송은 와락 달려들어 의자다리를 덥석 받아쥐고 콧 밑었다. 취중이 아니라 맑은 정신이라 해도 무송의 힘을 당해낼수 없는 터이라 장단련은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무송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그놈의 대가리를 내리찍었다. 워낙 기운을 쓰던 장단련이 기를 쓰며 일어나는것을 무송은 왼발로 걷어차서 다시 거꾸러뜨리고 그놈의 목을 잘랐다. 이어 돌아서서 장도감의 머리도 잘라냈다.

그리고 상우에 술과 고기가 있는것을 보고는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연거퍼 네댓잔을 마신후 시체에서 옷자락을 베내여 피를 묻혀 흰 벽에다 “살인자는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이다.”라고 크게 써놓았다.

그리고 상우의 금은기명들을 밝아 오그라뜨려 품속에 집어넣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장도감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2층에 계시는 나리들이 취하신 모양이다. 얼른 올라가서 부축해 모셔라!”

부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두 사람이 2층으로 올라왔다.

무송이 얼른 층계옆에 비켜서서 아래를 살펴보니 그들은 다른 놈들이 아니라 일전에 자기를 붙잡았던 두 하인놈이었다. 무송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겨 그들을 지나쳐보내고 다시 나서서 그놈들이 내려갈 길을 막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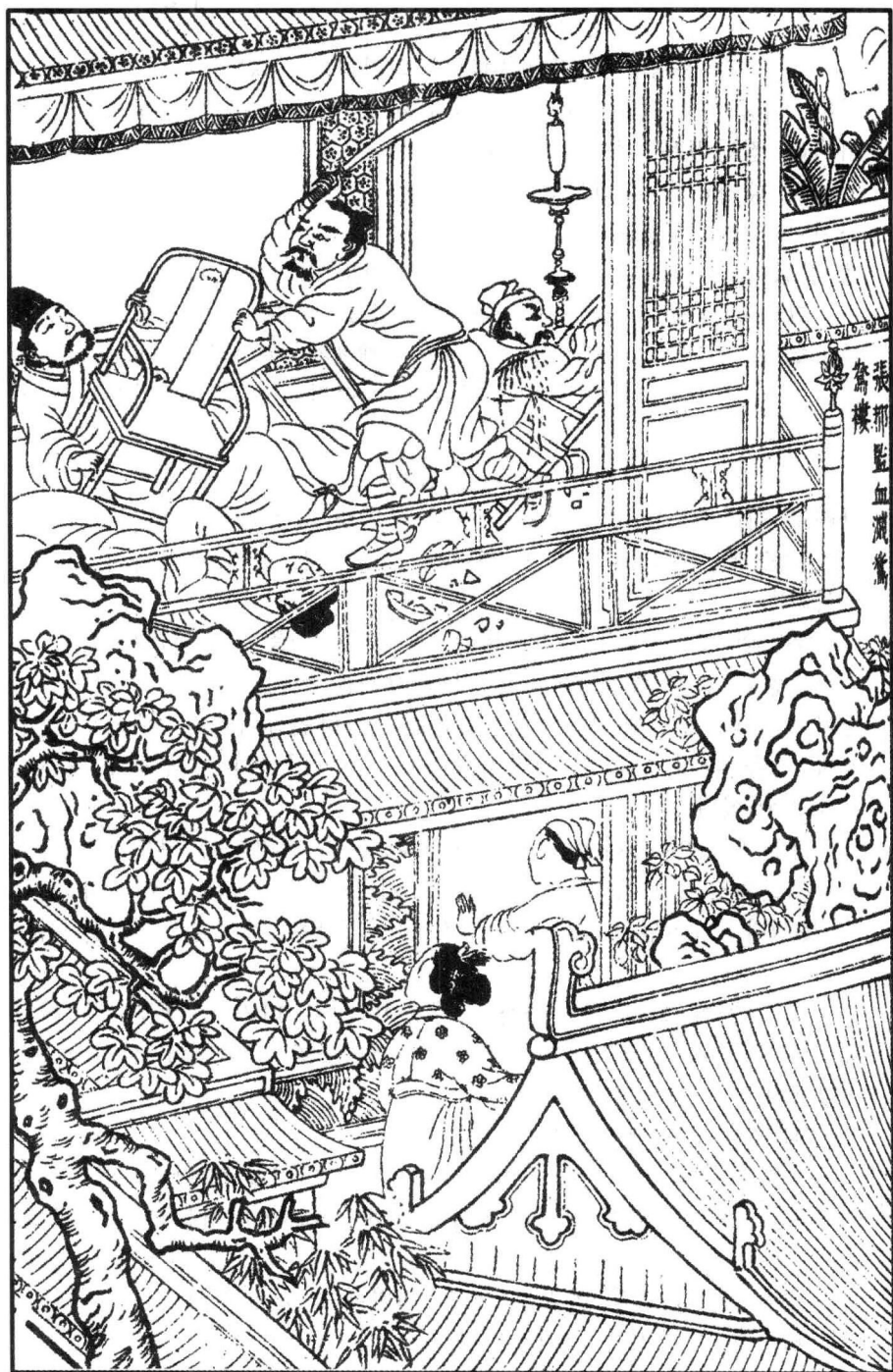
방안에 들어선 하인들은 시체 셋이 온통 피바다를 이룬 방바닥에 뒹굴고있는것을 보자 질겁하여 서로 쳐다보기만 할뿐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야말로 머리통을 쪼개여 차가운 얼음물을 들이붓는듯 하였다.

그 두놈이 돌아서는 순간에 무송이 뒤로 다가가 칼을 번쩍이니 어느새 한놈이 거꾸러졌다. 남은 한놈은 폴짝 뛰어앉아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네놈도 용서할수 없다!”

무송은 역시 그놈을 거머쥐고 단칼에 머리를 잘랐다. 이리하여 호화로운 루각에 피가 랑자하고 등불밑에 시체가 너저분히 널리게 되었다.

(손을 안 댔으면 몰라도 기왕 덴바에는 끝장을 보겠다. 백놈을 죽인대도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다.)



張都監血濺鴛鴦樓

이렇게 생각한 무송은 칼을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우에서는 왜 그리 야단법석이나?”

장도감의 부인이 묻는데 무송은 벌써 방문앞에 다가섰다.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가 들어오는것을 보자 부인이 묻는다.

“넌 누구냐?”

대답 대신 무송이 칼을 날려 그녀의 얼굴을 찍으니 녀인은 털썩 방문어구에 쓰러지며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무송이 그 계집을 깔고앉아 목을 베려했으나 도무지 베여지지 않아 달빛에 비쳐보니 칼날은 벌써 무디어져있었다.

(이러길래 베여지지 않지!)

무송은 뒤문밖으로 나가 무딘 칼을 내던지고 박도를 들고 도로 들어왔다.

이때 밝은 불빛 하나가 다가오기에 쳐다보니 중추절 밤에 노래를 부르던 시녀 옥란이가 어린 계집애 둘과 함께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것이였다. 옥란은 땅바닥에 쓰러져있는 부인을 발견하자 놀라 소리쳤다.

“아이구머니, 이게 웬일이냐!”

무송은 박도로 옥란의 가슴패기를 푹 찌르고 어린 계집애 둘도 단칼에 차례로 찢러죽인 다음 가운데 방을 나와 앞문에 빗장을 질렀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계집 두서너트를 찾아내여 찢러죽였다.

(이만하면 분풀이가 됐으니 이제 가자!)

무송은 칼집을 버리고 박도만 들고 옆문을 나와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걸어두었던 전대를 내렸다. 그리고 품에 간수해두었던 납작해진 술기명들을 싸서 허리에 띠고는 박도를 거꾸로 들고 성큼성큼 걸어 성벽앞에 다달았다.

(성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다간 붙잡히고말테니 이 밤으로 성안을 벗어나야 한다.)

무송은 이렇게 생각하고 성벽우로 기여올랐다. 원래 맹주성은 작은 곳이라 토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무송은 성가퀴에 서서 아래를 굽어보다가 박도자루를 짚고 훌쩍 뛰어 해자가에 내려섰다.

밝은 달빛에 보니 물은 한두자 깊이밖에 될것 같지 않았다. 때는 10월중순이여서 물줄기들이 거의 다 말라버렸던것이다.

무송은 신과 버선을 벗고 행전과 무릎싸개를 끄른 다음 바지가랭

이를 건어올리고 해자를 건넜다.

문득 시온이 가져다준 여덟날짜리 미투리생각이 떠올라 보따리에
서 미투리를 꺼내여 신고나니 멀리 성안에서 4경 3점을 알리는 경점
소리가 들려왔다.

“‘량원(梁園)¹⁾이 좋기는 하나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는데 원한
도 풀었으니 빨리 서둘러야겠다.”

무송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박도를 들고 동쪽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시가 있다.

도중에 칼 쓸 일은 버려버지만
뜻밖에 루각에서 술까지 마셨네
혼자서 술한 목숨 끊었으니
사람 잡는 그 마음 백정보다 독하네
그러지 않았다가 원귀가 감길테니
그 성화 받고서야 달아날수 있을까?

5경까지 걸었으나 날은 아직 밝지 않았다. 밤새 큰일을 해낸 무
송은 피곤하기도 하려니와 장독까지 나서 어찌나 쑤시는지 견딜수가
없었다. 마침 저편 숲속에 자그마한 낡은 사당이 보였다.

무송은 그리로 들어가 박도를 세워놓고 보따리를 베개 삼아 마루
바닥에 쓰러지다싶이 누웠다. 잠이 어렵פות이 들려고 하는데 별안간
밖으로부터 갈구리 두개가 쑥 들어와 무송을 걸더니만 뒤미처 웬 사
나이 둘이 뛰어들어 무송을 타고앉아 바줄로 묶었다.

“이놈은 살진 놈이니 형님한테 가져가자.”

뛰여든 네 사나이가 지껄었다. 아무리 톡트림해도 벗어날수 없게
된 무송은 그들에게 보따리와 박도를 빼앗긴채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등등 들려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길에서 그 네 사나이들이
저희들끼리 지껄었다.

“야, 이놈 좀 봐! 이 녀석이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일가? 도적질을 하다가 얻어맞고 도망쳐온 놈이 아닐가?”

1) 량원: 한대(汉代)의 량효왕(梁孝王)의 동산. 일반적으로는 황실(皇室)을 가리키는 말
로 쓰임.

무송은 아무말없이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약 4, 5리쯤 갔을 때 초가 한채가 나타났다. 그들이 무송을 떠밀며 자그마한 문을 들어서니 안에는 등불이 켜져있었다.

그들은 곧 무송의 옷을 벗기고 기둥에 비끄러맸다. 무송은 부뚜막우에 가로 걸린 대들보에 사람의 다리가 두개 매달려있는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제는 백정놈들의 손에 걸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가보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맹주부에 뗏뗏이 자수나 할걸. 그러면 단칼에 죽더라도 이름만은 세상에 뗏뗏이 남겼을것이 아닌가!)

간사한자 몰살시켜 원한을 씻었는데
영웅호걸 재난 피해 명예를 더럽히라
천추의 장한 기개 살아서 뗏뗏커늘
7척 장사 죽는것이 어찌 그리 값없으랴.

네 사나이가 보파리를 들고 웨쳤다.

“형님, 형수님, 빨리 나와 보슈! 굉장한 놈을 붙잡아왔수다.”

“곧 나갈테니 너희들은 손을 대지 말아라. 칼질은 내가 할테니!”

앞방에서 들려오는 대답이었다. 조금 있으니 웬 녀인과 건장한 사나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왔다. 그들 둘은 무송을 눈여겨보더니만 녀인이 먼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무도두아저씨가 아니세요?”

그 사나이도 따라서 소리쳤다.

“어서 이 동생을 풀어놓아라!”

무송이 보니 그 사나이는 다름아닌 채원자 장청이고 녀인은 모야차 손이랑이었다. 깜짝 놀란 네 사나이는 서둘러 바줄을 끄르고 옷을 주어입게 하였다. 두건은 이미 다 해여졌으므로 대신 병거지를 가져다 씌웠다.

장청은 십자과거리에 점포 여러개를 가지고있었는데 무송은 그것을 모르고있었다.

장청은 무송을 얼른 객석에 청하여 앉히고 인사를 하는등 마는등 하면서 놀라 황급히 물었다.

“동생은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나?”

“얘기를 하자면 집니다. 형님과 헤어진후에 류형소로 왔는데 다행히 시관영의 아들 금안표 시은을 만나지 않았겠소? 그는 오랜 친구처럼 매일 좋은 술과 고기로 나를 대접해주었소. 그가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는데에는 이런 리유가 있었소. 맹주성 동문밖 쾌활림에 그의 점포가 있어 돈벌이가 잘 되었는데 장단련이 데리고 온 장문신이란 놈이 세력을 등에 업고 그 주점을 공공연히 빼앗지 않았겠소. 시은이 이런 사정을 말하는걸 들으니 나도 분한 생각이 들어 술취한김에 장문신을 때려눕히고 쾌활림을 시은에게 도로 찾아주었소. 이 일로 시은은 나를 더욱 받들어 대접했소. 그런데 얼마후에 장도감이 장단련에게 매수되어 꾀를 꾸며 나를 데려다 제 수종으로 만들어놓고는 나를 모함하여 장문신의 양갓음을 대신 하려고 하지 않았겠소. 지난 8월 보름날이었소. 도적이 들었다는 거짓말로 날 꾀여 내아로 뛰어들게 만들고는 미리 은으로 만든 술기명들을 내 고리짝에다 넣어두었다가 날 도적으로 몰아 맹주부청으로 압송해다 매질로 억지로 거짓공초를 받아서 날 옥에 가두었소. 다행히 시은이가 상하관리들에게 돈을 먹여서 우선 목숨만은 잃지 않게 되었소. 그때 마침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탐내지 않고 또 죄없는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는 섭공목이라는 사람과 시은이와 전부터 아주 가까이 지내는 강절급이라는 사람이 함께 힘을 써주어 기한이 차자 매만 맞고는 은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소. 바로 어제 저녁에 성밖을 벗어나 귀양길에 오르는데 꽤심한 장도감이 간계를 꾸며 장문신의 두 제자더러 사령놈들과 짜고 중도에서 나를 해치우라고 했소. 비운포의 으스스한 곳에 이르자 그 두놈이 손을 쓰려는것을 내가 먼저 발길로 차서 물속에 처박고 뒤미처 두 사령놈도 박도로 찍어죽이고 물에 처넣었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아 다시 맹주성으로 들어갔소. 초경 4점에 먼저 마구간에 들어가 마부 한놈을 죽인 다음 담을 넘어들어가 부엌에서 계집종 둘까지 죽이고나서 곧장 원앙루에 올라가 장도감, 장단련, 장문신을 죽이고 뒤이어 수종 두놈을 죽였소. 아래층에 내려와서 그놈의 녀편네와 자식들과 시녀까지 다 찢어죽이고 그날 밤으로 도망쳐 성벽을 뛰어넘어 성을 빠져나왔소. 새벽 5경까지 걷고나니 지칠대로 지친데다 장독까지 나서 걸을수가 없었소. 그래 길가의 사당에 들어가 쯔

쉬려는데 저 네 사람한테 묶이여 이리로 끌려오게 되었다오.”

무송이 말을 마치자 옆에 있던 네 사나이가 엎드려 절을 하며 사과했다.

“우리 넷은 모두 장청형님의 부하들이올시다. 저희들이 며칠동안 투전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무슨 벌이라도 있을가 해서 숲속에 들어가 길목을 지키고있는데 마침 형장께서 온몸이 피범벅이 된채로 그 사당에 들어가 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우리 형님께서 ‘산채로 붙잡아오라.’고 분부해서 저희들이 갈고리와 올라미만 가지고 갔으니 말이지 그런 분부만 없었더라면 형장의 목숨을 해쳤을것입니다. 그야말로 태산같이 높으신분을 몰라보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주십시오.”

장청내외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요즈음은 저 사람들더러 산채로 잡아오라고 했었지. 하지만 저 사람들이야 우리 속을 어찌 알았겠나. 자네들은 모르지만 만약 이 동생의 몸이 그렇게까지 지치지만 않았더라면 자네들 넷은 고사하고 40명이 달려든대도 당해내질 못할 거라구.”

그 네 사나이는 그저 꾸벅꾸벅 절만 했다.

“자네들이 노름밀친이 떨어졌다니 내가 좀 대주지!”

무송은 그들을 일어나게 하고 보따리를 헤쳐 온전 열냥을 꺼내주면서 나누어 가지라고 했다. 네 사나이는 백배 사례했다. 그것을 보고있던 장청도 온전 두서너냥을 꺼내주니 그들은 그것을 받아놓고 나가버렸다.

“동생은 내 마음을 몰랐을거요. 나는 동생이 떠나간후에 혹 자네가 또 무슨 실수를 해서 조만간에 돌아올것 같아 저 녀석들에게 벌이를 나가면 꼭 산채로 잡아오라고 당부했었지. 저놈들은 만만한 사람을 만나면 산채로 잡아오지만 이겨내기 힘든 사람이면 꼭 죽여버린단니까. 그래서 칼을 주지 않고 갈고리와 올라미만 주어서 내보내군 했지. 아까도 저것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의심이 나서 내가 나와보겠다고 했는데 동생일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장청이 이렇게 말하니 손이랑이 그의 말을 받았다.

“소문에는 아저씨가 장문신을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술에